

2024.04.26.(금) 증권사리포트

LG이노텍

2024년 상반기 기대 이상

[출처] IBK투자증권 김운호 애널리스트

24년 1분기 실적은 예상치 상회

LG이노텍의 2024년 1분기 매출액은 23년 4분기 대비 42.7% 감소한 4조 3,336억 원이다. 23년 1분기 매출과 유사한 규모이다. 이전 전망 대비 소폭 감소한 규모이다. 광학솔루션은 예상치 소폭 하회, 나머지 사업부는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 전 분기 대비로는 광학 솔루션이 감소하고 나머지는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하였다. 2024년 1분기 영업이익은 23년 4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1,760억원이다. 이전 전망치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나 컨센서스 대비로는 의미 있게 개선되었다. 이전 전망 대비 개선된 것은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원/달러 환율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2분기. 계절성 극복

LG이노텍의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24년 1분기 대비 3.2% 증가한 4조 4,076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전 전망 대비 상향된 규모이다. 2019년 이후로 2분기 매출액이 1분기 매출액을 상회한 처음일 전망이다. 광학솔루션과 기판소재 매출액이 1분기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2024년 2분기 영업이익은 24년 1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823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전 전망과 최근 계절성을 크게 상쇄하는 수준이다. 이는 원/달러 환율 효과와 예상보다 강한 매출 영향으로 분석한다. 1분기 대비 부진한 것은 광학솔루션 사업부 부진이 주요 원인이다. 나머지 사업부는 1분기와 유사한 수익성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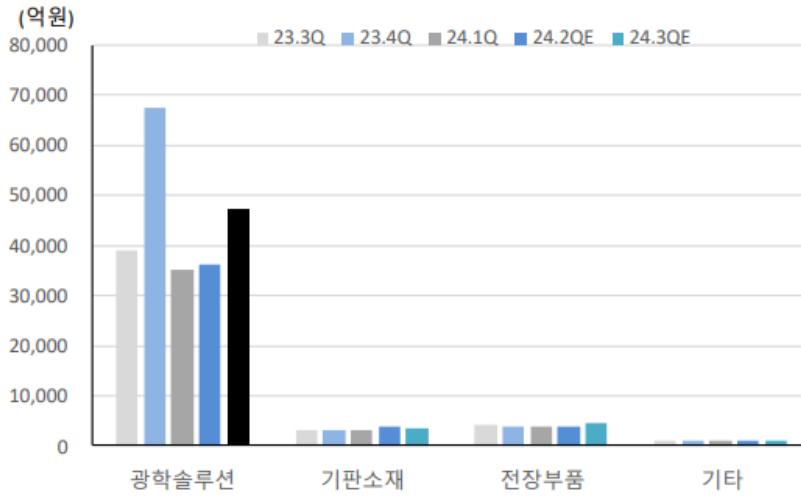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300,000원 유지

LG이노텍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를 유지한다. 이는 광학솔루션이 계절성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부진하지만, 카메라 사양이 2024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ASP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2분기 계절성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기대되고,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이 섹터 내에서 가장 크다고 판단하고, 주가는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목표주가는 30만원을 유지한다.

(단위:십억원 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19,589	20,605	22,167	24,096	24,464
영업이익	1,272	831	1,020	1,063	1,071
세전이익	1,135	639	872	992	1,053
지배주주순이익	980	565	733	800	848
EPS(원)	41,401	23,881	30,957	33,805	35,830
증가율(%)	10.3	-42.3	29.6	9.2	6.0
영업이익률(%)	6.5	4.0	4.6	4.4	4.4
순이익률(%)	5.0	2.7	3.3	3.3	3.5
ROE(%)	25.9	12.6	14.5	13.9	13.1
PER	6.1	10.0	6.8	6.2	5.8
PBR	1.4	1.2	0.9	0.8	0.7
EV/EBITDA	3.4	3.7	2.9	2.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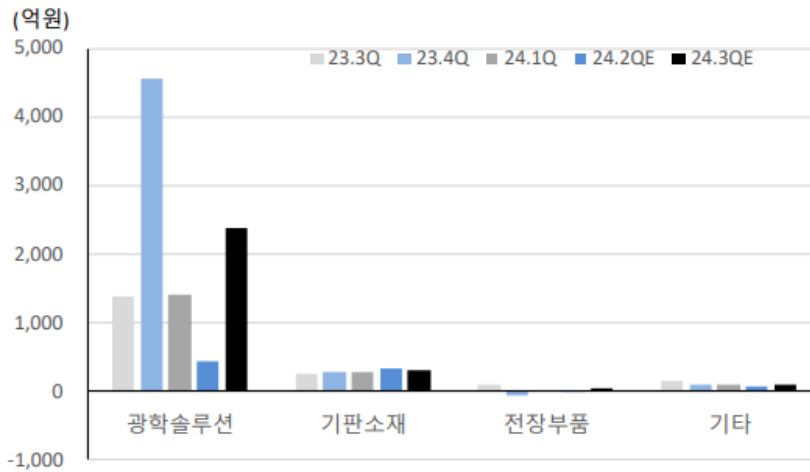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LG이노텍 분기별 사업부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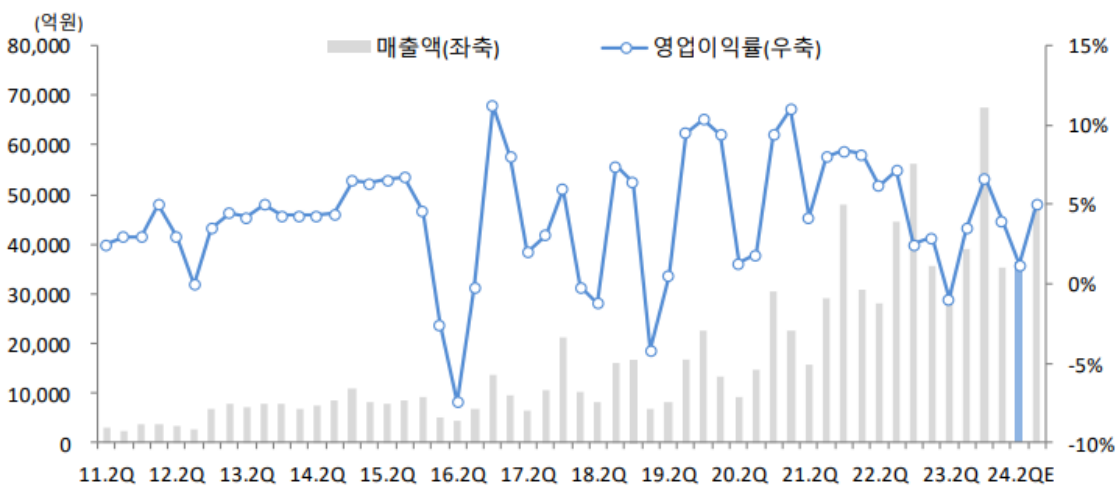
자료: LG이노텍,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LG이노텍 분기별 사업부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LG이노텍,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03. LG이노텍 광학솔루션 사업부 매출액





유니드
 시와 전력수요 급증의 수혜, 탄소포집
 [출처] 하나증권 윤재성 애널리스트

1Q24 실적 컨센 17% 상회

1Q24 영업이익은 275억원(QoQ +28%, YoY +1,619%)으로 컨센을 17% 상회했다. 국내 법인 영업이익은 매월 개선되었으며, 3월 기준으로는 OPM 13%를 기록했다. 이는 1) 판매량 증가(QoQ +8%) 2)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른 레깅 스프레드 확대 덕분이다. 중국 법인 실적은 1) 춘절 비수기 영향에 따른 판매량 감소(QoQ -9%) 2) 연소 가격 약세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2Q24 전통적 성수기 진입으로 실적 개선세 지속

2Q24 영업이익은 362억원(QoQ +32%, YoY +338%)으로 실적 개선세 지속을 예상한다. 국내 법인은 1) 성수기에 진입하며 판매량이 증가(QoQ +8%)하고 2) 전기료 하락으로 스프레드가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 법인은 1)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며 판매량이 증가(QoQ +13%)하고 2) 전방 산업인 농약 등 수요 증가로 연소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공급 안정성과 탈탄소를 위한 가스발전/개질+CCS, 데이터센터의 DAC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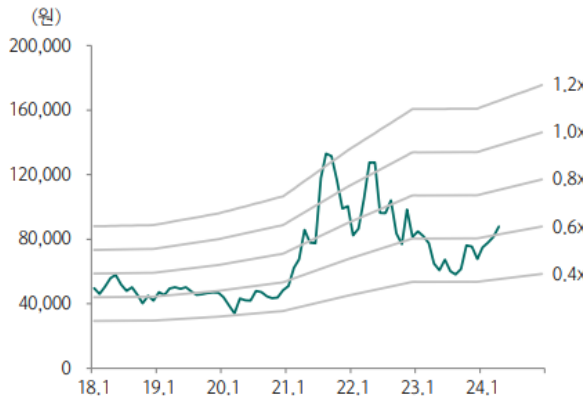
AI발 전력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공급부족 리스크는 이제 오히려 AI의 성장을 위협할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Dominion Energy/Duke Energy/Georgia Power 등 미국 주요 전력 생산업체들은 급증하는 수요 속 공급 안정성을 위한 대안으로 추가 가스발전소 건설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가스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신규 장거리 송전망의 필요성이 낮아 적시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Super Major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놓칠 리 없다. 미국 No.1 천연가스 업체 EQT는 2024년 3월 애팔래치아와 버지니아를 잇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Equitrans Midstream을 55억\$(7.2조원)에 인수해 버지니아에 본격적으로 가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ExxonMobil은 LNG 사업 확대와 텍사스 블루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를, Saudi Aramco는 Jafurah 가스전을 통한 LNG 사업 확대 및 블루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안정적 전력 조달을 위한 가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탈탄소 달성을 위한 탄소포집의 역할도 동시에 중요해져, 향후 가스발전+CCS와 가스개질+CCS를 통한 블루수소/암모니아 생산은 본격적인 개화가 예상된다. 실제, EXM의 2023년 7월 CO2 파이프라인 업체 Denbury 인수(약 49억\$=6.4조원)는 LNG사업 확대와 동반한 Super Major의 탄소포집 투자 본격화를 상징한다. 참고로, 가동 기준 CCS 프로젝트는 2023년 9개 2024년 47개 2025년 84개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에서의 DAC 개발도 포착된다. Meta와 X(Alphabet의 자회사)는 각각 데이터 센터에서의 폐열을 활용한 액체 기반 DAC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액체 기반 DAC의 흡착제는 주로 가성칼륨이 사용된다. 유니드는 탄소포집용 칼륨계 시장의 글로벌 No.1으로 AI/데이터센터와 전력 수요 급증 과정에서 대폭 수혜가 가능한 구조다. 2024년은 실적 정상화의 원년이며, 2025년은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확장이 예상된다. 2024년 이익 추정치를 21% 상향하며, TP도 9.2만원에서 11만원으로 조정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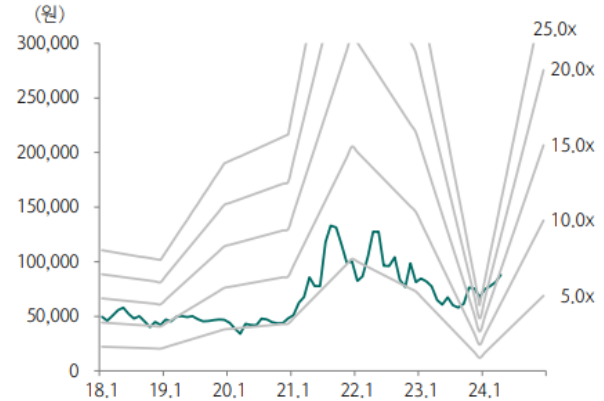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404.9	1,133.7	1,176.7	1,391.4
영업이익	147.9	32.1	127.8	156.6
세전이익	141.3	22.8	122.6	152.4
순이익	124.3	16.3	93.2	115.8
EPS	14,550	2,403	13,769	17,109
증감율	(29.15)	(83.48)	472.99	24.26
PER	5.59	28.21	5.92	4.76
PBR	0.61	0.51	0.56	0.50
EV/EBITDA	4.12	6.36	3.39	2.72
ROE	13.10	1.80	9.87	11.15
BPS	133,892	134,122	146,321	161,861
DPS	2,000	1,600	1,600	1,600

도표 3. 유니드 12M Fwd PBR 밴드 차트



자료: 하나증권

도표 4. 유니드 12M Fwd PER 밴드 차트



자료: 하나증권



솔루엠

해상 물류 비용 증가로 원가율 상승

[출처] IBK투자증권 이건재 애널리스트

2024년은 뚜렷한 상저하고

동사 1분기 실적을 매출액 3,710억원(-35.9%, YoY), 영업이익 220억원(-57.1%, YoY)으로 전망. 전년동기 대비 매출과 이익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이는 2023년 실적이 상고하저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2024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4.5% 성장한 2조39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

물류비 상승으로 이익률 하락

글로벌 고객향 제품 공급을 위해 동사는 컨테이너 선박을 물류 솔루션으로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예멘 후티 반군 영향으로 홍해와 연결된 수에즈운하로의 물류 이동이 제한되며 아시아/유럽 컨테이너 운임이 461% 폭증함. 수에즈운하를 향하던 컨테이너선들은 아프리카 남단인 희망봉을 돌아 유럽에 도착해 평소보다 2주~한달 정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됨. 거리상으로 약 9,000km를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시아/유럽 물류 비용 증가는 → 아시아/미주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해상 운임의 전반적 상승을 야기시키고 있음. 물류 비용 증가는 원가율 상승으로 이어져 연말까지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1%의 영업이익률 하락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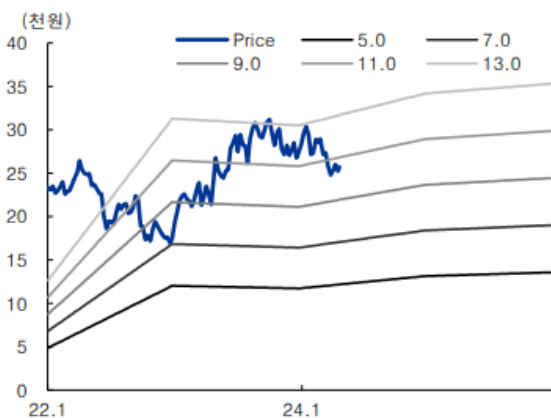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7,000원으로 조정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나 목표주가를 37,000원으로 하향. 근본 경쟁력인 ESL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확실시 되지만 단기적으로 물류비 부담에 따른 이익률 하락을 감안함. 후티 반군 문제 해결로 물류 비용 정상화 나타날 경우 이익률 빠르게 회복되며 주가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기대

(단위:십억원배)	2021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153	1,695	1,951	2,039	2,227
영업이익	27	76	155	142	160
세전이익	26	50	143	131	148
지배주주순이익	13	47	120	117	131
EPS(원)	273	946	2,407	2,347	2,629
증가율(%)	-72.2	246.9	154.4	-2.5	12.0
영업이익률(%)	2.3	4.5	7.9	7.0	7.2
순이익률(%)	1.1	2.7	6.1	5.6	5.8
ROE(%)	6.9	16.9	34.8	25.6	22.5
PER	82.3	18.4	11.3	11.0	9.8
PBR	4.2	3.0	3.4	2.5	2.0
EV/EBITDA	24.7	10.0	7.6	8.2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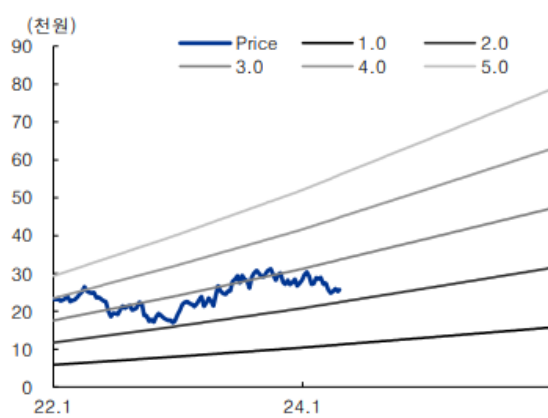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Forward PER Band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그림 2. Forward PBR Band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대동

2024년 KEY는 유럽과 로봇

[출처] 유안타증권 하현수 애널리스트

유럽에 거는 기대

2023년부터 국내외 농기계 시장은 고금리 기조 속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 때 북미 Hobby Farm 수요 증가로 늘어났던 중소형 트랙터 매출은 엔데믹 이후 줄어들어 동사의 외형 축소의 요인이 되었다. 2024년 실적은 외형보다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동사는 중소형보다 이익률이 높은 중대형 라인업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중대형 트랙터 수요가 높은 유럽 매출 성장이 올해 실적의 Key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3년 유럽 트랙터 매출은 832억원(YoY +32.1%)으로, 그 중 중대형 트랙터가 전년대비 330% 급증했으며, 매출 비중도 10.3%에서 30.3%로 늘어났다. 2023년 보여줬던 유럽 매출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튀르키예 공급 물량이 반영되어 YoY 50% 이상 성장이 기대된다.

올해부터 반영되는 로봇 실적

1) 로봇모어

2Q24부터 유럽 매출에 로봇모어 판매가 반영될 예정이다. 매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동사 로봇 사업의 신규 매출이 발생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글로벌 로봇모어 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23~27년 CAGR은 +10.4% 수준이다. 상반기 국내 주요 대기업과 로봇모어 파트너십 계약을 완료했으며, 하반기부터는 전문 판매 채널을 통한 시장 진출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 파트너사와 함께 향후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한 로봇모어 라인업 확장이 기대된다.

2) 포스코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2024년 상반기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1차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을 공급한다.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은 골재, 흙, 풀더미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스키드로더를 확장시킨 장비로, 제철소 낙광 제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작업 환경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해 2025년에는 사람의 조작이 최소화된 자율작업 임무 로봇을 출시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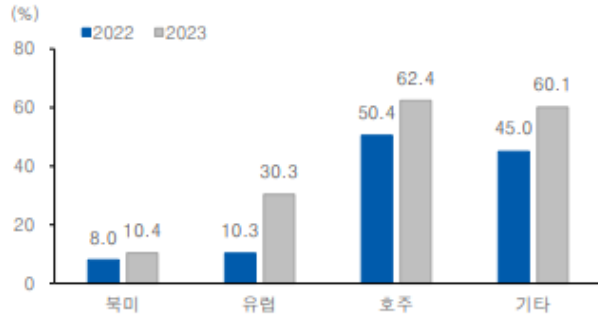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A	2024F
매출액	11,792	14,637	14,334	14,423
영업이익	382	883	654	742
지배순이익	336	386	176	279
PER	7.3	7.7	17.5	11.1
PBR	0.6	0.8	0.7	0.5
EV/EBITDA	10.2	8.4	12.4	10.7
ROE	10.1	11.1	4.4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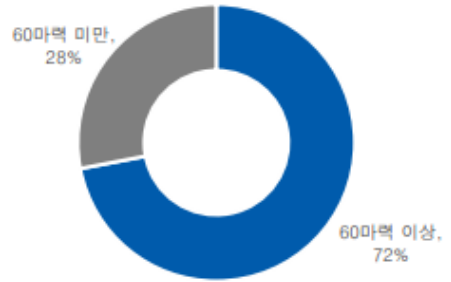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대동 중대형 트랙터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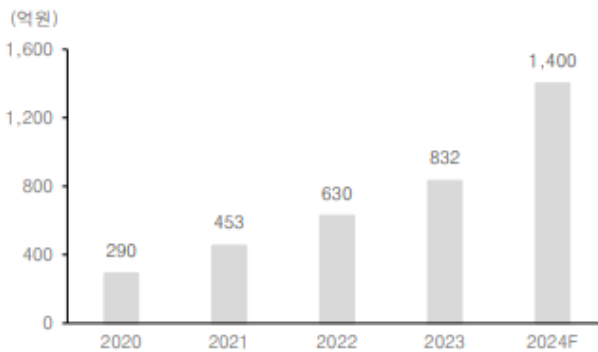
자료: 대동,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유럽 트랙터 시장 마력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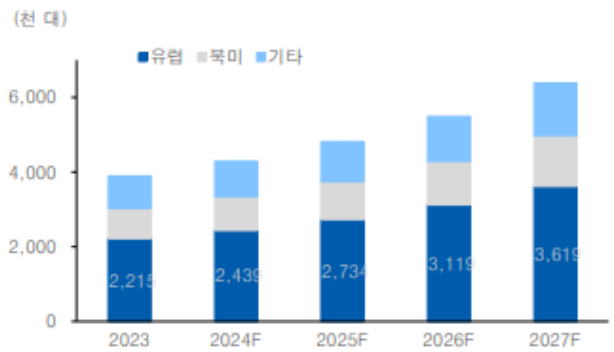
자료: 대동,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대동 유럽 매출액



자료: 대동,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로봇모어 시장 전망 (CAGR +10.4%)



자료: Anizo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썸리드

1Q Preview - 여전히 실적은 좋군요

[출처] [하나증권 김홍식 애널리스트](#)

매수 투자 의견/12개월 TP 15,000원 유지, 장/단기 매수 적절 평가

썸리드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1) 2024년 1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날 전망이고, 2) 2024년 일시적인 이익 감소가 나타날 수 있지만 2025년 이후 장기 실적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며, 3) 미국 DAS 매출과 방산 매출이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럽, 일본 장비 매출은 점진적 회복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4) 2024년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어 5G Advanced 투자 기대감이 올라올 올 여름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급반등할 소지가 커 보이며, 5) 2024~2025년 이익 전망치와 역사적 Multiple을 근거로 보면 현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분기 실적 흐름과 지역별 매출 전망, 현재 주가 수준을 감안하면 장/단기 투자 유망해 보인다.

1Q 연결 영업이익 44억원 예상, 냉정히 평가하면 우수한 실적

썸리드는 2024년 1분기에 연결 매출액 529억원(-18% YoY, -48% QoQ), 연결 영업이익 44억원(-15% YoY, -66% QoQ) 기록이 예상된다. 전년동기비 및 전분기비로만 보면 부진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우수한 실적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1분기가 전형적인 비수기인데다가 4분기에 매출 썸림이 심한 업종이며, 2023년 1분기에 일시적으로 미국 DAS 매출이 몰리는 양상을 나타나 2024년 1분기 역기저 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면 그렇다. 과거 1분기에 영업 적자를 기록한 적이 다반사이며 통신장비 업체 대다수가 2024년 1분기에 적자를 기록할 것임을 감안하면 역시 썸리드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호실적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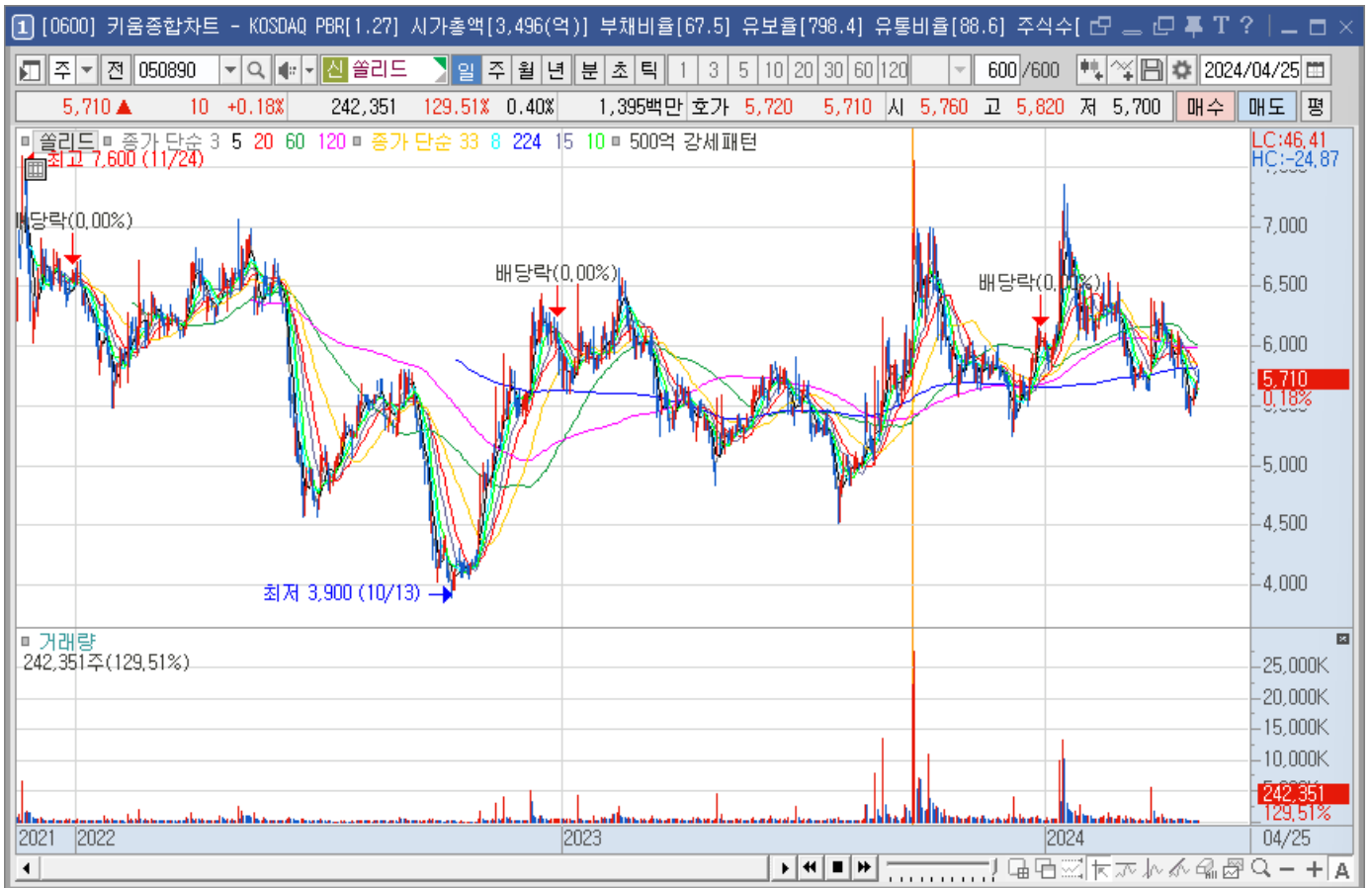
실적대비 주가는 과도하게 낮은 편, 장기 실적/수급 개선되면서 주가 오를 것

썸리드는 2022~2023년 가파른 이익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기록하지 못했다. 삼성의 통신장비 사업 침체로 대다수의 통신장비 업체 실적이 부진했고 주가 하락이 나타남에 따른 동반 하락 현상 때문이었다. 2024년 들어서는 썸리드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갖추며 상승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탄력적인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지는 않다. 아마도 2024년 일시적인 이익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이 역시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하며, 향후 주가 상승의 결정적 계기는 큰 그림으로 인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최근 AI 활성화로 통신 트래픽이 급증하는 양상이며, 이에 발 맞춰 각국의 5G 추가 주파수 경매 및 망 투자 재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2025년도엔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가 재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썸리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수급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 판단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279.8	321.4	307.4	357.5
영업이익	28.6	36.3	30.8	52.7
세전이익	36.3	49.1	31.3	53.2
순이익	29.8	40.9	27.6	46.6
EPS	487	668	450	762
증감율	16.79	37.17	(32.63)	69.33
PER	11.91	9.07	12.49	7.38
PBR	1.53	1.35	1.15	1.00
EV/EBITDA	9.70	8.44	8.76	4.80
ROE	14.06	16.30	9.68	14.63
BPS	3,779	4,492	4,892	5,605
DPS	50	50	50	50





한화엔진

예상보다 빠른 턴어라운드

[출처] 메리츠증권 배기연 애널리스트

서프라이즈 이상의 서프라이즈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상으로 2024년 1분기 매출액은 2,934억원(+47.2% YoY, +5.4% QoQ), 영업이익은 194억원(+376.8% YoY, 19981% QoQ)을 기록함. 영업이익률은 +6.6%로 전년동기대비 4.6%p 개선됨. 영업이익 컨센서스 70억원을 177.5%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함. 세전이익은 186억원(+158.3% YoY, 흑자전환 QoQ), 당기순이익은 149억원(+162.7% YoY, 흑자전환 QoQ)을 기록함

추정치 대비 실제 매출액 24.9% 초과: 한화오션향 추가 물량 효과 때문

1분기 실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메리츠증권 추정치 대비 각각 24.9%, 367.5%씩 초과 달성한 서프라이즈. 한화오션향 납품 물량 추정에서 4대 정도 오차가 발생했고, 인도 스케줄 변경의 영향으로 분석. 주요 고객4사(한화오션, 삼성중공업, Yangzijiang Shipbuilding Group, New Times Shipbuilding)향 1분기 납품량을 23대로 추정하며, 기존 추정치보다 4대 더 납품했다고 보여짐

추정치 대비 실제 영업이익 367.5% 초과: 구조적인 판가 상승 + 믹스 개선

저가일감 해소 및 DF(Dual Fuel) 엔진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당초 예상했던 2분기보다 일찍 확인됨. 2012년 3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5%를 초과하는 영업이익률(+6.6%)을 기록함. 전방산업의 온기 반영이 확인됨. 1분기 한화엔진에서 납품한 선박용 2-stroke 저속엔진을 탑재하는 신조 선박들의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9.4% 상승했다고 추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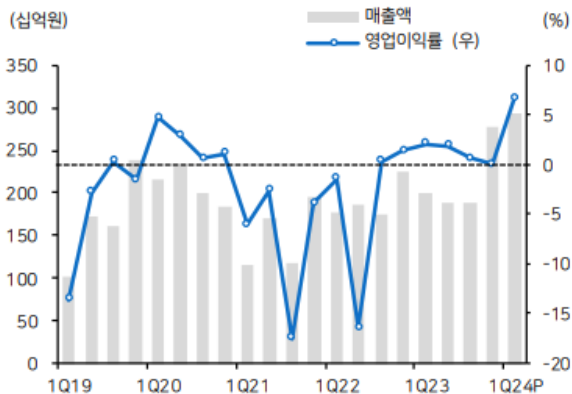
1) 한화엔진의 선박엔진을 탑재하는, 인도 예정 선박들의 가격 수준이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의 추가 개선을 기대함. 2) 2021~23년 신규수주 기준으로 DF 엔진 비중이 55%에서 95%까지 확대된 바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믹스 개선 효과가 수익성 개선의 추가 요소로 작용할 전망

표1 한화엔진 1Q24 실적 Review

(십억원)	1Q24P	1Q23	(% YoY)	4Q23	(% QoQ)	컨센서스	(% diff.)	당사 예상치	(% diff.)
매출액	293.4	199.3	47.2	278.4	5.4	248.4	18.1	234.9	24.9
영업이익	19.4	4.1	376.8	0.1	19,980.7	7.0	177.5	4.2	367.5
세전이익	18.6	7.2	158.3	-5.6	흑전	4.3	330.2	2.1	771.3
순이익	14.9	5.7	162.7	-4.1	흑전	2.4	513.2	1.6	826.6
영업이익률	6.6	2.0		0.0		2.8	3.8p	1.8	4.9p
순이익률	5.1	2.8		-1.5		1.0	4.1p	0.7	4.4p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한화엔진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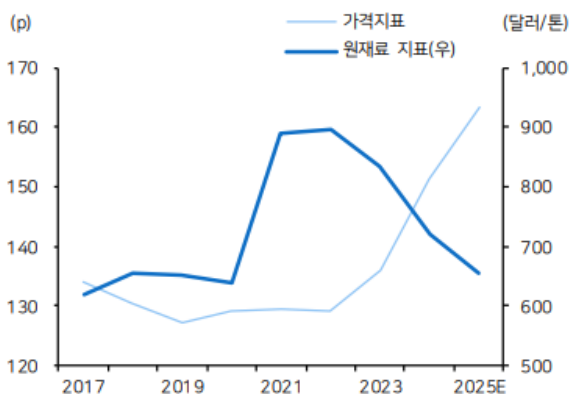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한화엔진의 신규수주 기준 이종연료(DF)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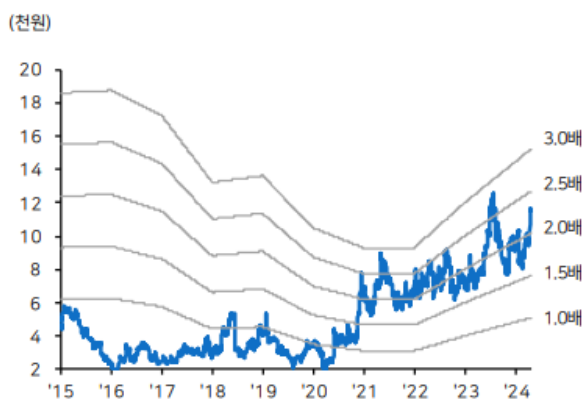
자료: 한화엔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신조선가 및 후판가격 추이 및 전망치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한화엔진 24개월 선행 PBR 밴드 차트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마녀공장

해외 성장 본격화 기대

[출처] 키움증권 조소정 애널리스트

23년: 기저가 높았을 뿐, 나쁘지 않았던 한 해

마녀공장은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사로, 브랜드 Manyo, 아워비건, 바닐라부티크, 노머시를 산하에 두고 있다. 동사의 대표 브랜드 Manyo는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Manyo의 판매 제품군 비중은 클렌징 51%, 앰플 23%, 스킨케어 21%다. 주요 채널 비중은 국내 43%, 해외 57%고, 해외 국가별 비중은 일본 32%, 중국 11%, 미국 5%다.

23년 동사의 매출은 1,050억원 (+3% YoY), 영업이익은 159억원 (-35% YoY, OPM 15%)을 기록했다. 전년 네고왕 행사 (22년 108억) 로 인한 기저 부담으로 매출 성장이 쉽지 않았고, 이익은 마케팅 투자 증가로 수익성이 축소되었다.

24년: 원래 좋았던 국내, 이제 시동 거는 해외

24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30억 (+49% YoY), 영업이익 44억 (+10%, OPM 13%)을 기록할 전망이다. 채널별 매출 성장률은 국내 +25%, 해외 +38%을 예상한다. 국내는 1분기 네고왕 실적 일부 반영과 국내 MBS 채널 호조, 해외는 일본 오프라인 확장 효과와 미국 기존 채널 내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24년 매출은 1,387억 (+32% YoY), 영업이익은 256억 (+61%, OPM 18%)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외 채널 성장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해외 비중국 채널 성장이 돋보일 전망이다. 채널별로 국내 +18% YoY, 일본 +16% YoY, 미국 +123% YoY 성장을 예상한다.

일본: 본격적인 마케팅 확대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23년은 온라인 → 오프라인 채널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케팅 공백으로 인해 작년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올해부터 벚꽃 에디션 출시, 이벤트 개최, 모델 섭외 등 마케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현재 일본 내 매대는 약 5,000개며, 올해부터는 마케팅 확대로 매출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올해 신규 채널 진출이 예정되어 있다. 올해 7월부터 코스트코 오프라인 내 클렌징오일의 초도 물량이 납품될 예정이고, 하반기에 얼타 입점도 계획 중이다. 미국 내 채널 확장을 앞두고 2분기부터 동사의 미국 내 마케팅 활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계획이며, 시장 내 반응이 긍정적일 경우 추가 물량 납품, 카테고리 확장, 신 채널 진출에 따른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

국내: 국내 채널의 성장도 양호하다. 올리브영 성장, 네고왕 이벤트 개최에 힘입어, 올해 국내 채널 성장도 지속될 전망이다. 하반기 캐릭터 콜라보, 할리우드 영화 콜라보 제품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2	2023
매출액	98.8	101.8
영업이익	23.8	15.4
EBITDA	24.5	16.4
세전이익	21.5	14.4
순이익	16.8	11.3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6.8	11.3
EPS(원)	1,225	749
증감률(% YoY)	NA	-38.9
PER(배)	0.0	30.0
PBR(배)	0.00	3.80
EV/EBITDA(배)		17.3
영업이익률(%)	24.1	15.1
ROE(%)	33.2	15.6
순차입금비율(%)	-73.5	-79.1

